영광군, 세계 최초 알러지 저감 '오프리 밀' 선보이다

농협·청년농업인·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 홍보 시식·평가회 개최

짜장면 맛보며 향·맛·식감·기호도 등 평가…내년 200t 원곡 생산 계획

영광군은 지난 16일 관내 농협, 가공업체, 농업인학습단체, 청년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성 밀(오프리) 홍보 시식·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시식·평가회는 세계 최초 알러지 저감 기능성 오프리 밀을 소개하고, 오프리 밀가루로 만든 짜장면을 직접 맛보며 그에 대한 향, 맛, 식감, 기호도 등을 평가하였다.

시식 결과로 일반 시중 판매 짜장면과 맛과 향에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식감과 선호도 부분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평소 밀가루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참석자들도 시식 후 속이 편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2020년에 국비 시범사업을 확보하여 올 가을 50ha의 면적에 오프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2021년 200톤의 원곡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식·평가회를 시작으로 기능성 오프리 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재배·생산과 유통·판매까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오프리 밀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프리 밀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특허(제10-1983446호, 2019. 5. 22.)와 국제 특허(미국, 유럽) 등록을 받았고, 주요특성으로는 ▲ 도복 강, 수발아 중도저항성임 ▲ 글루텐 불내성 경감용 ▲ 밀 알러지원결손(오메가-5 글리아딘 등) ▲ 밀 알러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오는 20일 공식 출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이 오는 20일 공식 출시된다.

함평군은 16일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을 이달 20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구매자가 판매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충전·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가맹점도 해당 어플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정산 시에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산계좌에 입금돼 수수료 부담과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말까지 1억 원 규모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0% 특별할인 혜택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등록한 후 상품권을 결제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수협 2021년산 김 초매식 개최

300여명 참석 김 양식어업인 무사안녕 풍년 기원

박우량 신안군수는 13일 천사섬분재공원 선상위판장에서 신안군수협 2021년산 첫 물김 위판경매 기념행사 및 초매식에 참석해 김 양식어업인의 무산안녕과 풍작을 기원했다.

초매식에는 신안군수협장, 군의장, 군의원, 도의원, 신안군 수산기관·단체 관계자 및 어업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물김 초매식은 그동안 노고하신 어업인 표창장 수여식 등 개회식과 함께 무사안녕 풍어제 등 기념행사로 진행되었다.

신안군수협 김길동조합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 15일 압해읍 송공 선상위판장에서 '21년산 물김 첫 위판경매를 시작했으며 초매식 행사는 김 양식어업인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하고, 김 생산의욕 고취와 위판사업 독려를 위한 자리"라고 말하며, "조합원과 김양식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협의 본연의 역할 다 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물김 전량이 수협에서 위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사에서 "김 산업은 바다어장 여건이 좋아 소득을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보다 축복받은 산업이나 현재 김산업육성법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며, 법적 뒷 받침하에 김산업 육성이 될 때 의미가 매우 크다며 금년 중 꼭 법이 제정" 되길 바라며, "김 생산자들도 바다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청정이미지를 유지하고 금년에도 김이 잘 형성될 수 있는 날씨와 안전한 바다 조업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안군수협 물김 총 위판고는 26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3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내년 1월부터 사업추진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4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취약계층 5동의 지붕개량,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5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희망자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7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68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감성을 기르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재개

영암군은 도기박물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맞춰 11월부터 다채롭게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암도기박물관에 따르면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날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과 '한국도자명품전 전시연계프로그램'을 각각 관내 초·중학생 대상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의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1개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황토화분과 나만의 반려식물'을 주제로 영암의 도기문화를 지역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식물을 통한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자명품전 전시연계프로그램은 관내 학교 학급단위 전시관람객을 대상으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도자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 도리포 어업인회관 준공

무안군은 지난 10월 25일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항에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0㎡, 지상 2층 규모의 도리포어업인회관을 준공했다.

이번에 신축된 어업인회관은 도리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정보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과 방문객의 직거래를 위해 60㎡ 규모의 어부장터를 회관 인근에 신축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